

한국 사랑을 향한 나의 도반(道伴)

구상, 고은 그리고
천상병!

안산재 수사(Brother Anthony) · 서강대 교수



한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애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

최초로 한국을 여행한 영국 여성 이사벨라 버드비숍은 그의 저서에서 19세기 말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사는 곳의 불결한 환경, 최고 엘리트층의 부정부패, 예술 문화의 부재 등을 매우 잘 묘사했다. 그러나 한국을 떠난 후 버드비숍은 자신에게 한국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고, 진한 애정을 느끼게 해 준 나라는 세상에 없노라고 말했다. 단 몇 년 만에 그녀는 이 모든 부정적 측면들을 불식시킬 만큼 한국문화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애정은 성공적인 문화적 조우의 신호인 것일까?

1980년 5월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필자는 한국을 사랑하며 이곳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할 것 같다. 외국에서 살 때 그 나라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현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자기 나라 문화와 가치를 현지에 있는 모든 것과 일일이 비교하며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을 들지 않게 하기에 매우 좋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애정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나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그 때문에 나의 애정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필자가 12년 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 신청을 했을 때 만난 한 공무원은, 자신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귀화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았지만 단지 한국이 좋다는 이유로 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나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그 때문에 나의 애정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필자가 12년 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 신청을 했을 때 만난 한 공무원은, 자신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귀화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았지만 단지 한국이 좋다는 이유로 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는 처음 이라고 말했다.

한국 문화를 관망하기는 어려워

여기서 가장 묻고 싶은 것은 오늘날 '한국 문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 그들이 체험하는 '한국만의' 문화란 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은 대부분 한옥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요를 깔고 잠을 자본 적도 없고, 식사할 때 아버지나 형이 따로 상을 받고 먼저 수저를 드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한복을 입고 출근하지 않으며, 갓을 쓴 사람을 실제로 본 적도 없다. 이들은 판소리나 창극 등의 국악을 즐기지 않는다. 녹차를 마실 때에도 티백을 사용할 뿐, 다도는 모른다. 이들이 한국 전통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은 막걸리를 마실 때인 것 같다. 일상 속에서 보이는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과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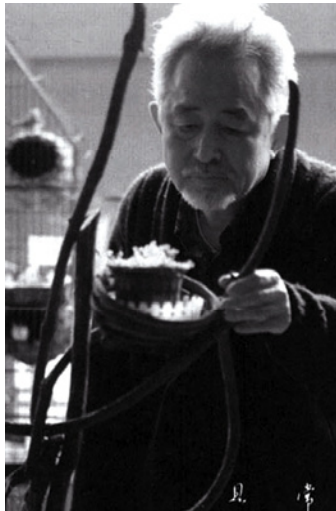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 전통 예술문화는 사라져 버릴 문화가 훨씬 더 소멸 가능성이 높은 이유들 때문이다. 한국으로의 국제 관광은 주로 여하는 저렴한 단체 관광이 대부분이다. 단체 분야이든 한국 전통 문화에는 별로 관심이

위험에 처해 있다. 다른 아시아 문화들에 비해 한국 중 하나는 그것이 관광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여러 아시아 국가 및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관광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은 공연 예술이든 수공예 분야이든 한국 전통 문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문학은 말할 것도 없다.



은 전세계 모든 현대화된 국가들에서 보이는 것과 똑같은 뿐, 특별히 한국만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과거에 비해 가장 크게 탈바꿈한 나라이다. 지금의 40대들은 어머니가 여름옷을 짓기 위해 베를 짜던 모습이며, 벗짚으로 지붕을 엮은 초가집에서 생활하고, 우물에서 물을 길고,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아이들은 십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현대식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한국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가 몹시 어려워지는 것이다.



구상 <http://www.poet.or.kr/ks/index.html>

오늘날 한국 전통 예술문화는 사라져 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다른 아시아 문화들에 비해 한국 문화가 훨씬 더 소멸 가능성이 높은 이유들 중 하나는 그것이 관광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으로의 국제 관광은 주로 여러 아시아 국가 및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단체 관광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단체 관광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은 공연 예술이든 수공예 분야이든 한국 전통 문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들은 녹차나 도자기, 불교 철학이나 고사찰, 왕실이나 민중의 전통 음악과 무용, 값비싼 수제 염색천, 우아한 고가의 전통 가구 등에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 문학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의 진짜 문화를 체험하기 힘든 이유?

한국의 '진짜' 문화를 체험하기 힘든 이유는 차를 예로 들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식당에서는, 심지어 최고급 호텔에서도, 녹차를 주문하면 대개 뜨거운 물 한 잔과 누르스름한 색을 띠는 정제 불명의 가루가 든 티백을 준다. 차 대신에 커피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백 년의 차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며, 한국 녹차는 중국이나 일본 차에 비해 그 섬세한 풍미가 월등하다. 차를 마시는 장소 역시 중요하다. 차는 시골의 사찰이나 전통 가옥에서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어가며 마시

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다면 차는? 지리산 골짜기에서 만드는 야생차는 최고의 차 중 하나로, 필자는 해마다 5월이면 친구들과 함께 갓 만든 야생차를 마시러 지리산에 간다. 그곳에서 야생차와 더불어 산나물 등을 이용해 만든 음식들을 맛보며 진짜 한국적인 미(美)와 자연과의 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진짜 한국 문화를 느끼는 최고 방법은 사찰 체험이다. 이러한 체험을 한 한국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한국인들은 대개 나들이를 할 때나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에야 잠시 절에 들른다. 절에서 하룻밤을 기거하며 스님들과 차를 마시고, 이른 새벽 숲과 언덕에 올려 퍼지는 커다란 종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오염 가득한 도시가 까마득히 느껴지는 가운데 새 소리를 들으며 대웅전에서 예불을 드렸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무척 감사한 마음이 든다.

차와 사찰은 판소리나 국악 등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문화들과는 별개의 것이다. 오늘날 한국 어린이들은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배우지 가야금

이나 해금, 단소는 거의 배우지 않는다. 많은 고령의 인간문화재나 전통 기술 보유자들이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국 전통 음악은 세계문화유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고유 분야이지만 한국인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시들어 가고 있다.

한국 문학을 영어로-시인 구상, 세계적이며 한국적 세계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화란 많은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문화란 넓은 의미에서는 한 사회의 모든 측면을 가리키는 동시에 좁은 의미에서는 한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과 수공예를 가리킨다. 이 두 가지 의미에서 필자는 문학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했다. 필자는 이곳에서 영문학을 강의한 지 십

여 년 가까이 지나고 나자 이제는 그와 반대 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이나 미국의 독자들에게 알리자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우선 시인 구상의 작품부터 시작했다. 구상은 세계적인 동시에 매우 한국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구상의 서구적이고 카톨릭적인 세계관은 불교, 힌두교, 도교를 만나면서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의 시는 종종 평범한 일상—사람들을 만나고, 산업화로 오염된 강물을 바라보고, 언덕길을 걷는 등의 경험—에 뿌리를 두면서도 이 세상을 신의 구원으로 영생을 누리는 창조물로 보는, 매우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우주관을 담고 있다.

필자는 구상의 시집 다섯 권을 포함해서 고은의 작품 네 권과 서정주, 신경림, 김수영, 이시영, 김광규, 마중기 등의 시집 그리고 이문열의 소설 등 약 스무 편의 현대 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했다. 필자는 이들의 작품을 읽고, 이들 중 대부분을 만나고, 이들이 살아 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문학의 본질적인 측면을 알게 되었다. 문학은 고통의 산물이자 꺾이지 않는 희망의 원천이라는 점 말이다. 이들 작가들은 그들과 같은 세대의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현대사의 사건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구상은 1940년대 말에 북한의 사상 탄압을 피해 어머니와 형(그의 형은 카톨릭 사제였다)을 남겨둔 채 남으로 내려왔고, 이후로는 물론 가족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다.

천상병 <http://chunsangbyung.new21.org>



필자는 문학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했다. 이곳에서 영문학을 강의한 지 십여 년 가까이 지나고 나자 이제는 그와 반대 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이나 미국의 독자들에게 알리자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세계적인 동시에 매우 한국적인 세계관을 가진 구상에서부터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린 고은 그리고 사람다움의 단순함과 기쁨을 깨닫게 해 준 천상병의 작품을 번역했다. 필자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이곳에 살게 된 점을 감사하는 이유다.

이문열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가족을 서울에 남겨둔 채 공산주의의 대의를 위해 북으로 떠났다. 다른 문인들의 개인사 역시 한국 전쟁, 4·19 혁명, 반대와 저항이 용납되지 않았던 독재 시대, 한국 사회의 산업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학살 등 현대사의 사건들이 남긴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 문학을 영어로-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린 시인 고은

최근 석 달 사이에 몇 년 전 필자가 번역한 고은의 주요 작품 두 편이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하나는 소설 『화엄경(Little Pilgrim)』, 또 하나는 그의 『만인보(Ten Thousand Lives)』 연작 중 앞의 열 권의 내용을 발췌해 묶은 시집이었다. 결과는 좋은 듯하다. 소설 『화엄경』은 이미 2천부 이상 팔려 나갔고,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 기간 동안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하스는 뉴욕 북 리뷰에 고은의

고은 <http://koun.co.kr>





는, 진정한 영웅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대단했다. 천상병 시인이 '진지한' 학계 평론가들 대부분이 외면한 가운데 오직 자력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진정 진실하고 유일한 한국시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이다.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십년이 넘었건만 그의 책은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 판매도 부진한 서점가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이다. 이러한 생각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걸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훌륭한 마음이나 영혼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강조한 플라톤의 저서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고양시키고,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끌어내 준다. 이것이 바로 천상병 시인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 『귀천』에서 전하는 메시지이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를 썼을 1970년 당시에 그는 이유도 없이 심한 고문을 당한 직후였고 직업도, 돈도, 집도 없는 상태였으며 건강은 심각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당연히 그는 자신이 겨우 마흔이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세상을 향해 하고 싶었던 유일한 말은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꺾이지 않고 굳건했던 그와 그의 시는, 진실로 사랑다운 마음의 단순함과 기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필자에게 그것은 아마도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듯싶다. 그리고 이로써 필자가 이토록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이곳에 초청 받아 와서 살게 된 점을 감사해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될 것 같다. ●●●●

번역 · 한덕화

시집에 대해서 긴 글을 썼다. 고은은 오직 한국어만 하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매우 널리 알려진 작가가 된 것이다! 필자가 번역한 고은의 다른 세 작품은 몇 달 내에 미국에서 출판될 예정이다. 한국인들은 고은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될 것인지를 계속 묻지만, 필자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고은 덕분에 한국 문학이 세계에 알려졌다다는 점이다. 한국 문학이 한국 영화보다는 아직 덜 알려졌을지는 몰라도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고은은 한국 문화의 핵심을 알리는 대사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필자의 한국 이름인 '안선재'는 소설 『화엄경』의 주인공 선재 동자에서 따온 것이다. 선재 동자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한 만남들을 통해 삶의 진실을 조금씩 엿보는 인물이다.

한국 문학을 영어로-본질적 아름다움 일깨운 시인 천상병

또한 필자는 천상병 시인의 작품도 번역했다. 시인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를 알게 되었지만 인사동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카페 '귀천'에서 시인과 가난, 고통의 이십여 년을 함께했던 충실한 반려자 목순옥 여사를 만나 그의 삶을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이들은 필자가 한국과 한국 문화, 그 아름다움과 역사를 알아가는 데 친구이자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물질주의가 만연한 알팍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천상병 시인과 목순옥 여사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